문화도시로 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

고창군, 학술대회 개최
문화도시 경제학적 분석
치유·로컬비즈니스 등

'힐링, 문화도시와 경제학'을 주제로 문화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는 학술대회가 23~24일 고창 동리국악당과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열렸다. '골목길 경제학자' 연세대 모종린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힐링, 문화도시와 경제학'을 주제로 문화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는 학술대회가 고창에서 열렸다.

고창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문식)와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학회장 박정수) 공동 주관으로 고창군 동리국악당과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그 지역의 문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도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골목길 경제학자' 연세대 모종린 교수의 기획세션 발표를 시작으로 로컬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문화도시와 관련된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논의됐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재정 ▲지역사회연결과 치유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경제학 ▲문화와 로컬비즈니스를 주제로 특별세션의 발표가 이어졌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문화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세션,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의 자유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도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토론으로 구성됐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2023 한국문화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고창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고창 문화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민의 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 거버넌스 사업을 운영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화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의 학술연구를 통해 고창의 치유정신을 복원하고 지역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경제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내장산에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조형물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기는 이안행렬 재현 조형물이 내장산에 설치됐다. 정읍시는 실록과 어진을 안전하게 지켜낸 정읍의 선비 안의·손홍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내장산 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로 향하는 공원 탐방로에 이안행렬 재현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남원 'FAI 드론레이싱·엑스포' 중간 점검

10월 개최…추진상황 보고회

남원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남원시는 대회와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핵심 이미지를 결정하고 주요 홍보계획 수립 등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대한민국항공회, 대행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쟁점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오는 7월 세부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첫 대회인 '2023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남원에서 개최된다.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레저스포츠 엑스포'도 함께 열릴 예정으로 드론축구, 각종 체험행사, 드론쇼, K-POP 공연 등이 펼쳐져 남원 드론 산업 부흥의 원천이 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 대형마트·카페·음식점 위생 단속

이달까지 소비기한·변질 등

정읍시가 여름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 커피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판매업소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기타식품판매업) 23개소와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카페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등 위생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여부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 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여름철 대비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신재효문학상' 10월까지 작품 공모

고창군이 5000만원의 시상금이 걸린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신재효문학상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일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해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문화·관광 자원화하고자 제정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예비작가와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창작장편소설 분야 작품을 전국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최종 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나 배경으로 한 작품이며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라도 제외대상으로 판명나면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문화예술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선미 정읍시의원 '의정활동 인물 대상'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2023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정읍시의회는 한선미 의원이 한국인물사연구원,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의정, 교육, 문화예술 등 각 사회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적 정신과 리더십을 갖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찾아 선정·시상한다.

한선미 의원은 그간 의회에서 '공동주택 내 유휴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 허가를 제안하며', '정읍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촉구',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 등을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또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등 시민의 불편·부당한 부분을 직접 확인 후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한선미 의원은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읍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노후 건물 보유 9개 초·중·고 리모델링

전북교육청, 714억원 투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전북교육청이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대한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미래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 수립하고,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 건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7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 학교는 ▲군산구암초 ▲이리북초 ▲김제초 ▲월촌초 ▲남원용성중 ▲군산제일고 ▲정읍고 ▲인월중고 ▲남원용성고 등 9개교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 교장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 단계 업무추진 방법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간의 소통을 통해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영 전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기해 각 추진 단계별 연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으로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